

ICDC Weekly

인천광역시 감염병 주간소식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발행일 2024. 10. 23.(수) 통권 제26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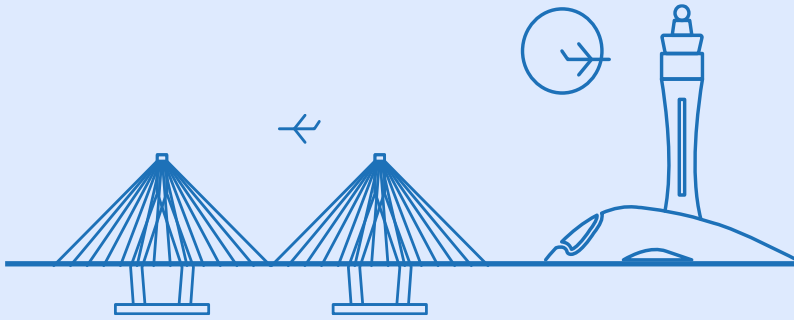
발행처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2층

연락처 032-440-8031

- 01 주간 감염병 소식
- 02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수감시 신고 현황
- 03 감염병 표본감시 신고 현황
- 04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 05 홍보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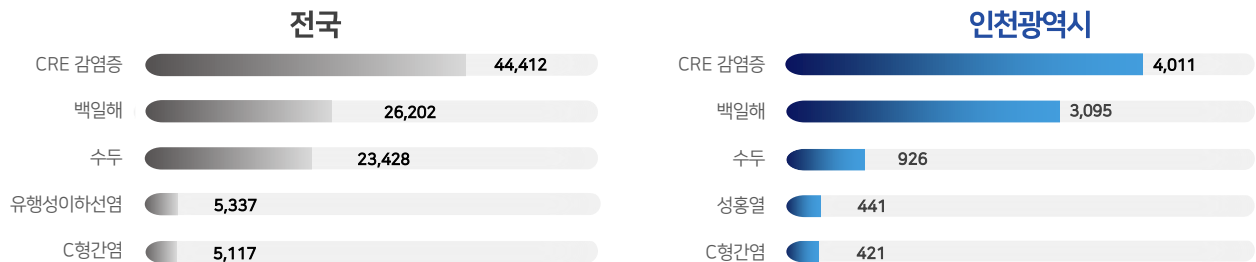
[부록] 2024년 백일해 발생 현황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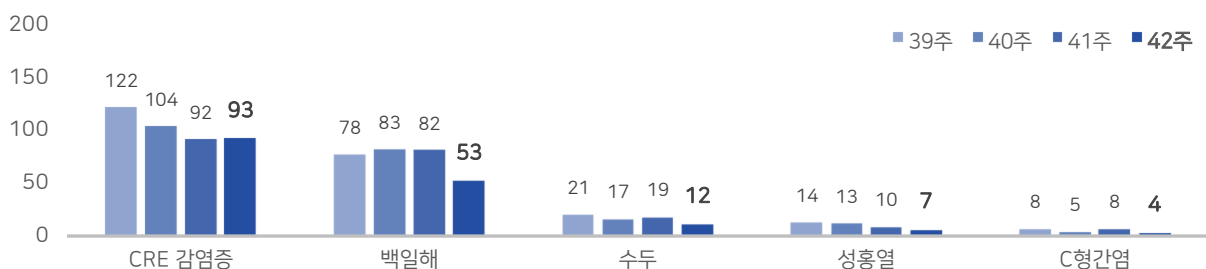
주간 감염병 소식

전국 및 인천광역시 감염병 누적 신고 현황



- (전국) 전국 감염병은 CRE 감염증 44,412건, 백일해 26,202건, 수두 23,428건, 유행성이하선염 5,337건, C형간염 5,117건 순으로 신고됨
- (인천) 인천광역시 감염병은 CRE 감염증 4,011건, 백일해 3,095건, 수두 926건, 성홍열 441건, C형간염 421건 순으로 신고됨
- 신고현황은 '24. 10. 23(수)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감염병통계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24년 누적기간(1주차~42주차)에 신고된 다빈도 5개 감염병에 대한 누적신고 건수임

인천광역시 다빈도 감염병 주요 신고 현황



- 42주차 인천광역시 감염병은 총 184건 신고되었으며, 최근 3주(39~41주) 평균(243건) 대비 59건 감소함
- 신고수 상위 5개 감염병은 CRE 감염증 93건, 백일해 53건, 수두 12건, 성홍열 7건, C형간염 4건 순서임
- 소식지 내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수감시 신고 현황(2페이지)을 참조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수감시 신고 현황

구 분		인천								전국			
		2024				동기간대비 (1-42주)				동기간대비 (1-42주)			
		42주	41주	40주	39주	2024	2023	증감	5년 평균	2024	2023	증감	5년 평균
1급	보툴리눔독소증										1 ▼	1	0
2급	수두	12	19	17	21	926	915	▲ 11	965	23,428	19,714	▲ 3,714	20,394
	홍역					2		▲ 2	0	47	5	▲ 42	12
	장티푸스					2		▲ 2	2	23	16	▲ 7	31
	파라티푸스					1	2 ▼	1	2	14	20 ▼	6	28
	세균성이질					3	2	▲ 1	2	33	29	▲ 4	27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9	5	▲ 4	8	229	188	▲ 41	201
	A형간염	1	1	1		53	47	▲ 6	202	962	1,080 ▼	118	2,457
	백일해	53	82	83	78	3,095	1	▲ 3,094	621	26,202	51	▲ 26,151	5,283
	유행성이하선염	3	4	3	10	276	366 ▼	90	334	5,337	6,672 ▼	1,335	6,531
	풍진												0
	수막구균 감염증								0	15	8	▲ 7	6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	1	-	0
	폐렴구균 감염증	1	1	1		27	34 ▼	7	24	350	328	▲ 22	291
	한센병								0	2	2	-	0
	성홍열	7	10	13	14	441	21	▲ 420	124	4,756	540	▲ 4,216	1,693
	VRSA 감염증									1		▲ 1	2
	CRE 감염증	93	92	104	122	4,011	2,433	▲ 1,578	2,237	44,412	31,095	▲ 13,317	26,558
	E형간염	2		1	3	39	26	▲ 13	23	595	436	▲ 159	458
3급	파상풍					4	2	▲ 2	1	26	19	▲ 7	21
	B형간염					16	11	▲ 5	17	207	259 ▼	52	281
	일본뇌염				1	1	1	-	0	1	7	16 ▼	9
	C형간염	4	8	5	8	421	500 ▼	79	546	5,117	5,962 ▼	845	7,180
	말라리아	3	3	3	7	120	122 ▼	2	79	668	726 ▼	58	487
	레지오넬라증			1		27	17	▲ 10	23	333	374 ▼	41	334
	비브리오패혈증		1	1		4	7 ▼	3	4	42	63 ▼	21	52
	발진열					1	1	-	0	1	12	-	0
	프프가무시증					3	9 ▼	6	8	1,087	1,190 ▼	103	1,035
	렙토스피라증						1 ▼	1	1	28	41 ▼	13	59
	브루셀라증						1 ▼	1	0	5	4	▲ 1	5
	신중후군출혈열					5	3	▲ 2	3	211	259 ▼	48	192
	CJD/vCJD					6	2	▲ 4	3	53	58 ▼	5	55
	뎡기열		1			12	11	▲ 1	6	160	146	▲ 14	83
	큐열						3 ▼	3	1	44	45 ▼	1	48
	라임병					1	7 ▼	6	2	19	31 ▼	12	17
	유비저									2	2	-	0
	치쿤구니야열									2	10 ▼	8	4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1			1	4		▲ 4	2	118	189 ▼	71	173
	지카바이러스감염증										2 ▼	2	1
	엡폭스									13			
	매독	4	2	4	4	129				2,270			
	매독(선천성)									13			

- 42주차(2024. 10. 13. ~ 2024. 10. 19.) 전수감시 신고 현황은 2024.10. 23(수)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감염병통계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매해 통계 자료는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임

- 5년 평균은 최근 5년(2020-2024)의 1주부터 해당 주까지 누적 신고수의 평균이며, E형간염은 최근 4년(2021-2024)의 1주부터 해당 주까지 누적 신고수의 평균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해 보고된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기초로 집계되며, 감염병별 신고범위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가 포함될 수 있음

- 지역별 통계는 환자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함 (단, VRSA 감염증과 CRE 감염증은 신고한 의료기관 주소지 기준임)

- 최근 5년(2020-2024)동안 발생이 없었던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리스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아토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증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콜레라, 폴리오, 발진티푸스, 공수병, 황열, 웨스트나일열, 진드기매개뇌염은 제외함

감염병 표본감시 신고 현황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현황

주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현황(2024-2025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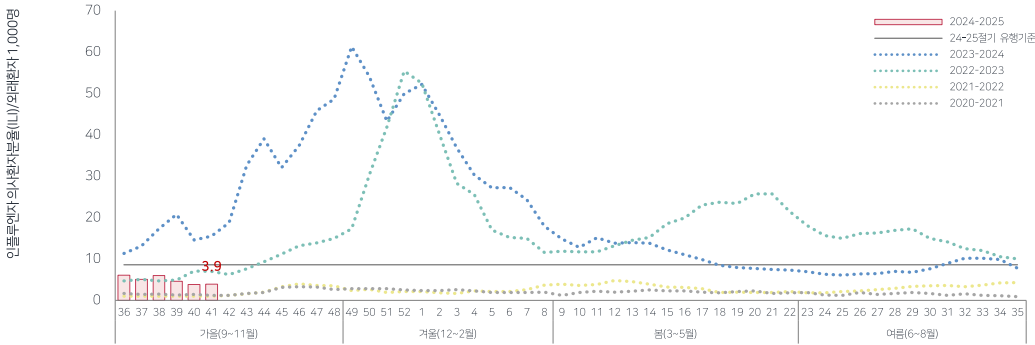
- (전국) 41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3.9명으로 전주(3.8명) 대비 증가

※ 2024-2025절기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8.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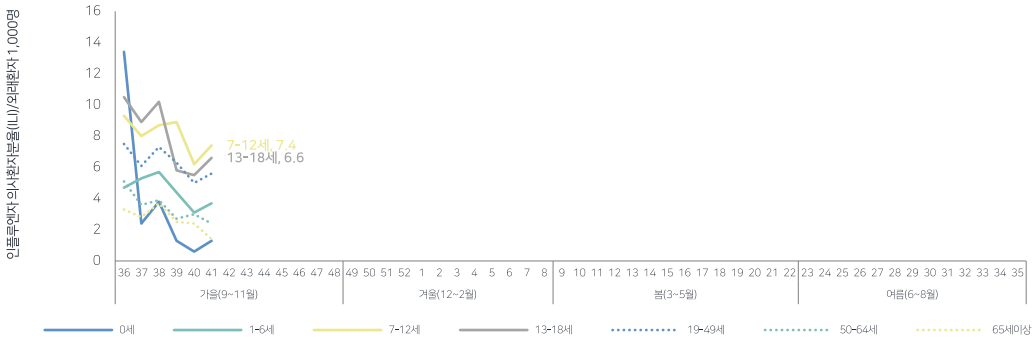
단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진료환자 1,000명

구분	2024년							
	34주	35주	36주	37주	38주	39주	40주	41주
전국	9.9	7.8	6.1	5.1	6.0	4.6	3.8	3.9

최근 5절기 주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전국)



2024-2025절기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전국)



1)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전분율)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총 진료환자 수) x 1,000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현황

주별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7종) 및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입원환자 현황

- (전국) 41주차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는 583명으로 전주(502명) 대비 증가*
- * 아데노바이러스(HAdV),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HRSV), 리노바이러스(HRV), 사람 코로나바이러스(HCoV) 전주 대비 증가
- (전국) 41주차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입원환자는 8명으로 전주(7명) 대비 증가
- (전국) 41주차 코로나19바이러스 입원환자는 116명으로 전주(146명) 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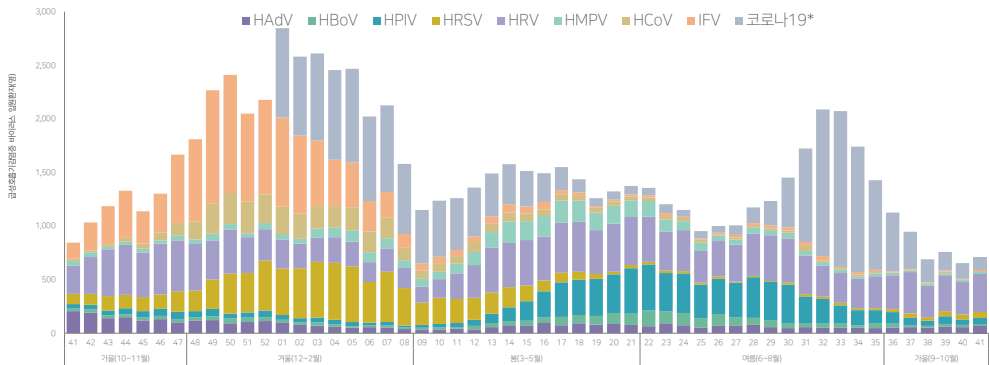
- 41주차(2024.10.6~2024.10.12.) 표본감시 현황은 2024.10.21.(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감염병통계 및 2024년도 40주차 표본감시 주간소식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현황은 표본감시 참여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감시 자료를 보고 시점 기준으로 분석한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함

* 의사환자: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현황은 표본감시 참여기관에 입원한 환자 감시 자료를 보고 시점 기준으로 분석한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함

- 수행기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 전국 198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의원) / 전국 220개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병원급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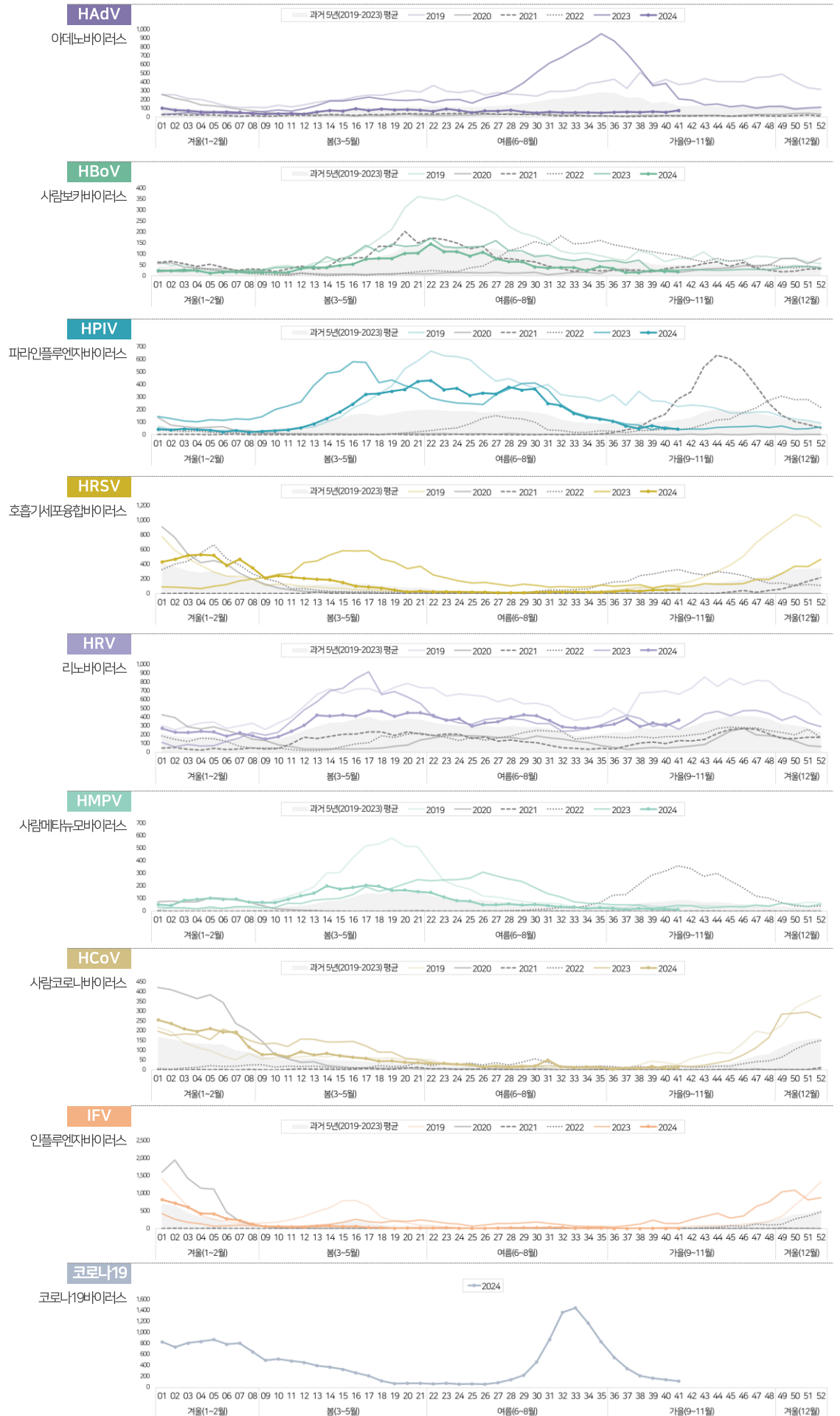


* 코로나19는 2024년 1주부터 포함

감염병 표본감시 신고 현황

최근 5년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7종) 및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입원환자 현황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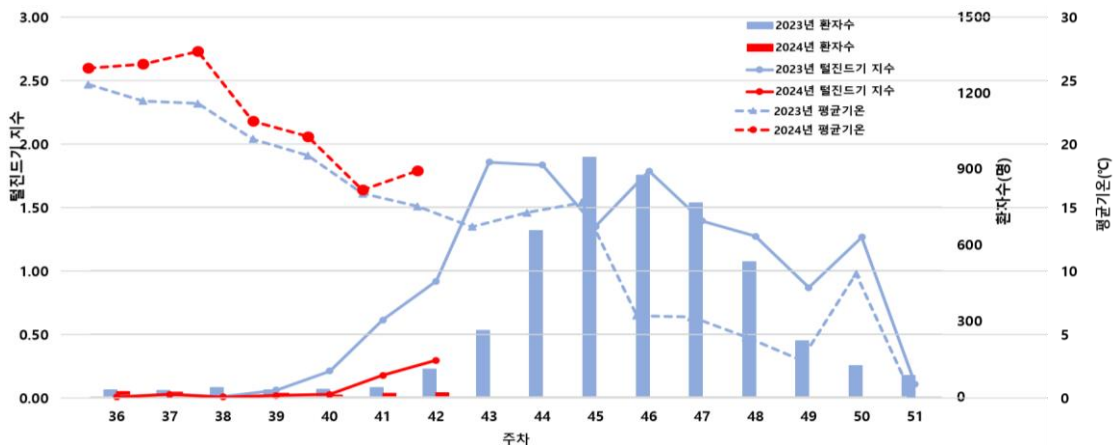


국내 무더위 가고, 털진드기(쯔쯔가무시증) 오고

- 전국적 조사 결과, 쯔쯔가무시균 매개체인 털진드기 발생 증가하기 시작
-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소매 옷 입기 등 예방수칙 준수 권고

- 질병관리청은 쯔쯔가무시증 주요 매개체인 털진드기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야외 활동 시 털진드기 물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힘.
-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후 발생할 수 있으며, 물린 후 10일 이내 가피(검은 딱지)가 생기는 특징이 있고,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근육통, 반점상 발진, 림프종대 등이 있음.
- 털진드기 발생 감시는 8월 넷째 주부터 12월 셋째 주까지 전국 20개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음.
 - 국내 쯔쯔가무시균을 매개하는 털진드기는 8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3년도 감시 결과, 남부와 서부, 일부 북부는 활순털진드기, 중부 및 북동부 지역에서는 대잎털진드기가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털 진드기는 평균기온 18℃ 이하에서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0~15℃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다가, 10℃ 미만으로 떨어질 때부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시기별로 살펴보면 털진드기는 40주부터 42주차(9월말~10월초)에 증가하기 시작하며, 환자는 43주부터 47주차(11월 중순)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질병관리청은 추수기 및 가을 단풍철에 털진드기와의 접촉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음에 따라,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 위험환경 노출을 최소화하기를 당부하며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에는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소매 옷, 긴 바지 착용 등의 예방수칙을 잘 지킬 것을 강조함.
 - 또한, 감염 초기에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기에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며, 야외활동 후 진드기에 물린 자국이 관찰되고, 10일 이내 발열, 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면 쯔쯔가무시증을 의심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함.

털진드기 트랩지수 및 환자수와 평균기온 (2023년~2024년)



※ 출처: 질병관리청 보도자료(2024. 10. 22)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국외 매독

- (일본) 2022년 이후 유행 지속
- 2022년 이후 3년 연속 환자 1만명 이상 보고

- 일본은 2021년 이후 매독 환자 보고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2년에는 연간 환자 발생이 감시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1만명을 초과하였으며, 올해(2024년)에도 3분기 중으로 누적 환자 발생이 1만명이 넘게 보고되었음.
 - 2024년 9월 말까지 매독 환자 10,766명 보고되어, 1분기에는 3,218명, 2분기는 3,552명, 3분기는 3,996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3분기 발생은 이전 최대 발생이었던 2023년 2분기 발생에 육박하였음.
 - 2분기까지 확인된 성비는 1:0.57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연령대별 발생은 20대(34.8%), 30대(19.7%), 40대(18.6%) 등 순으로 나타났음.
 - 과거보다 최근 여성 환자의 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며 특이적으로 20대 신고 환자의 성비는 1:1.45로 여성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 들어 젊은 여성들의 감염 사례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한편 2분기까지 보고된 매독 환자 중 1기 매독 환자가 4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2기 매독 30.9%, 잠복 매독(병원체보유자)은 22.5%, 3기 매독은 0.9%로 나타났으며, 선천적 매독 환자는 총 14명으로 보고됨.
- 일본에서는 1960년대 매독 발생이 크게 증가한 이후 한동안 낮은 발생이 유지되었으나, 2010년대에는 소폭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2021년 이후 발생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2021년 7,978명, 2022년 13,221명, 2023년 15,087명의 환자가 보고되었음.
 - 후생노동성은 최근 발생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는 이성 간 성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사례들이 과거보다 증가하였음을 언급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최근 젊은 여성들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선천성 매독의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하였음.
 - 실제 매독에 감염된 임신부의 수도 2021년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선천성 매독도 2023년 총 37명이 신고되어 2021년 이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가 보고됨.
- 2021년 이후 매독 발생의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일본 후생노동성은 매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으며, 고위험집단(MSM, 불특정 다수와의 성접촉, 구강 및 항문 등을 통한 성접촉 등) 대상으로 안전한 성 접촉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 무엇보다도 선천성 감염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임신부들에 대한 검진을 독려 중이며, 매독은 완치되더라도 재감염이 가능하므로 보다 주의할 것을 안내하였음.
 - 또한 성 접촉 시 콘돔을 사용할 것과 통증이 없는 궤양이 생식기에 확인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조기 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국외 후천성면역결핍증

- (필리핀) HIV 신규 감염 작년 동기간 대비 33% 증가
- 2024년 2분기 신규 HIV 감염 5,321건 보고, 성접촉이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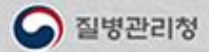
- 최근 필리핀에서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음.
 - 올해 2분기 동안 총 5,321건의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1분기에 보고된 신규 감염 규모보다 55%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6월에 발생 보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감염경로는 성접촉이 96%(5,102건)였으며 이외 주사바늘 공유, 수직감염 등이 조사됨.
 - 또한 2분기 기간 내 PrEP(노출 전 예방요법)*를 받은 사람들의 수도 총 6,283명이 등록되어 전년 동기간에 비해 4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PrEP(Pre-Exposure Prophylaxis): HIV 예방을 위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방대로 복용할 경우 HIV 예방에 매우 효과적임.
- 필리핀에서 HIV 감시를 시작한 1984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누적 135,076명의 HIV 사례가 신고되었으며, 이 중 127,217명이 생존하고 있거나 사망이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현재까지 보고된 총 사례의 94%는 남성으로 확인되며, 25~34세가 50%, 15~24세가 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과거 기간(1984년~2018년)에 비해 최근에는 25세 미만 젊은 연령층의 감염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까지 보고된 감염인 중 66%에 해당하는 84,086명은 ART(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ART 치료를 받는 감염인 중 44%는 지난 1년 내 바이러스 수치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를 받은 감염인 중 88%는 현재 바이러스가 억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필리핀 내 ART 치료를 받는 전체 추정 감염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39%만 바이러스가 억제된 것으로 나타남.
- 필리핀은 최근 HIV 감염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2012년과 2023년 사이 신규 감염 발생률이 4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필리핀 보건당국은 최근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연령층의 HIV 감염 증가가 보고됨에 따라 청소년 대상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HIV 감염인들의 자기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ART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을 검토 중임
- 한편, 국내에서는 질병관리청이 최근 필리핀 HIV 신규 발생 증가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해외여행 시 HIV/AIDS 예방 안내 관련하여 『HIV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를 통해 HIV 감염인 진료 및 관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





2024.10.16.



해외여행 시 HIV/AIDS 주의!



최근 필리핀에서 HIV 신규 감염
작년 동기간 대비 32.9% 증가,
그중 성접촉이 96%
[2024년 4월~6월 5,321건 발생]



**위험한 성접촉을 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익명·즉석만남
성파트너 NO!



잡은 성파트너
변경 NO!



성매매
성접촉 NO!



콘돔 없이
성관계 NO!

**해외여행 후, 감염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세요!**

보건소에서 무료·익명 검사가 가능합니다

※ 감염 의심일로부터 4주 정도 지난 후 검사받는 것을 권장하며,
검사는 1차 선별 검사와 2차 확인 검사로 진행됩니다.

*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AID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후천성면역결핍증)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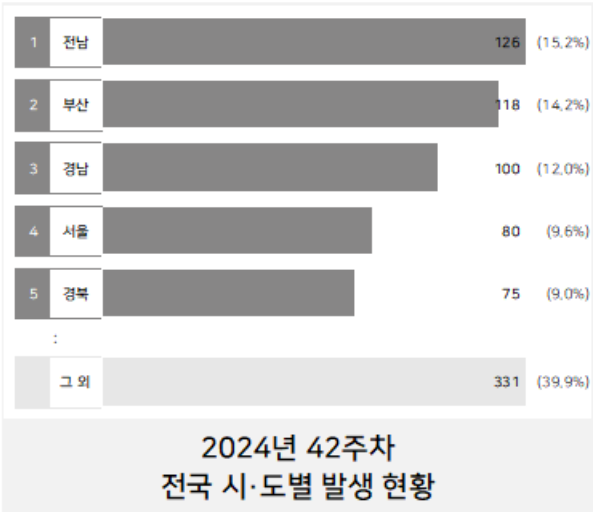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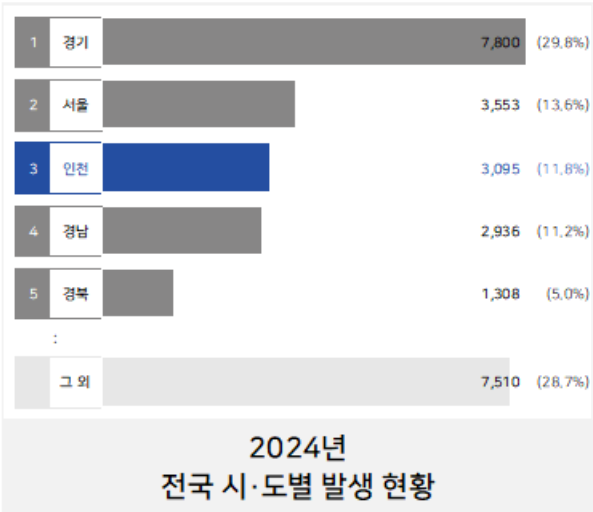
2024년 백일해 발생 현황

- ☞ 발작성 기침 백일해, 전국 학령대 중심 유행 확산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4.7.15.)
- ☞ 백일해·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최근 4주 크게 유행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4.6.21.)
- ☞ 발작성 기침 백일해 가파른 증가세, 영아 적기 예방접종(2·4·6개월) 가장 중요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4.6.7.)
- ☞ 콜록 콜록 백일해, 최근 10년간 동기간(1.1.~4.24.) 대비 최다 발생 !! 우리 아이 예방접종(총 6회) 꼭 챙겨주세요!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4.4.26.)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 보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1. 전국 시·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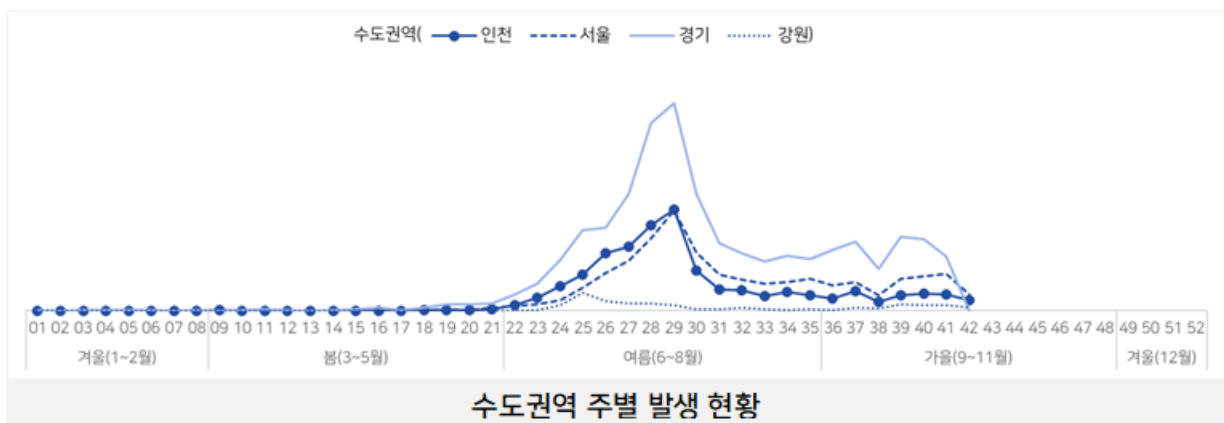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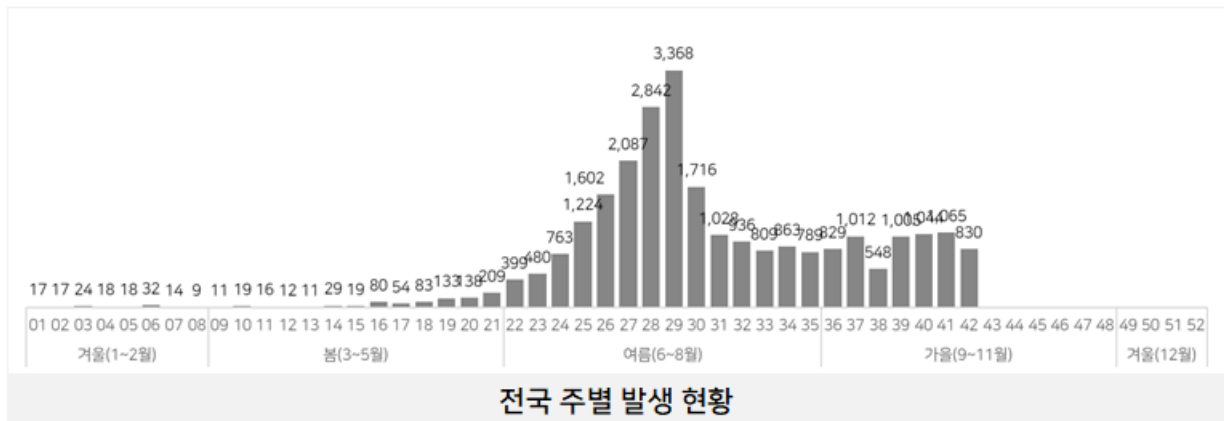
- **누적** 2024년(1.1.~10.19.) 백일해 환자 26,202명 발생
 - 경기(7,800명, 29.8%), 서울(3,553명, 13.6%), 인천(3,095명, 11.8%), 경남(2,936명, 11.2%), 경북(1,308명, 5.0%) 등의 순으로 인천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주간** 42주차(10.6.~10.19.) 백일해 환자 830명 발생
 - 전남(126명, 15.2%), 부산(118명, 14.2%), 경남(100명, 12.0%), 서울(80명, 9.6%), 경북(75명, 9.0%)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



2. 주별 현황

○ 전국적으로 증가세 지속

- **전국** 42주차(10.13.~10.19.) 830명으로 전주(1,065명) 대비 감소(▼22.1%)
- **인천** 42주차(10.13.~10.19.) 53명으로 전주(82명) 대비 감소(▼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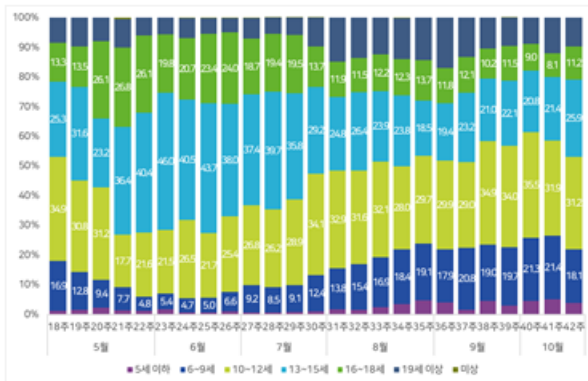


3. 성별,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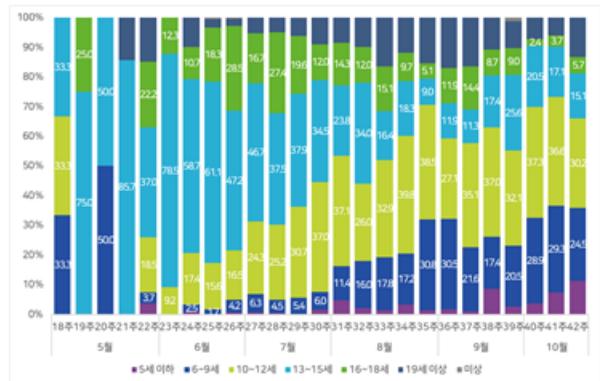
○ 중학생·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발생

○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청소년(13~18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아동·청소년(6~18세)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함. 최근 전국은 중학생 연령대(13~15세)의 비율이 증가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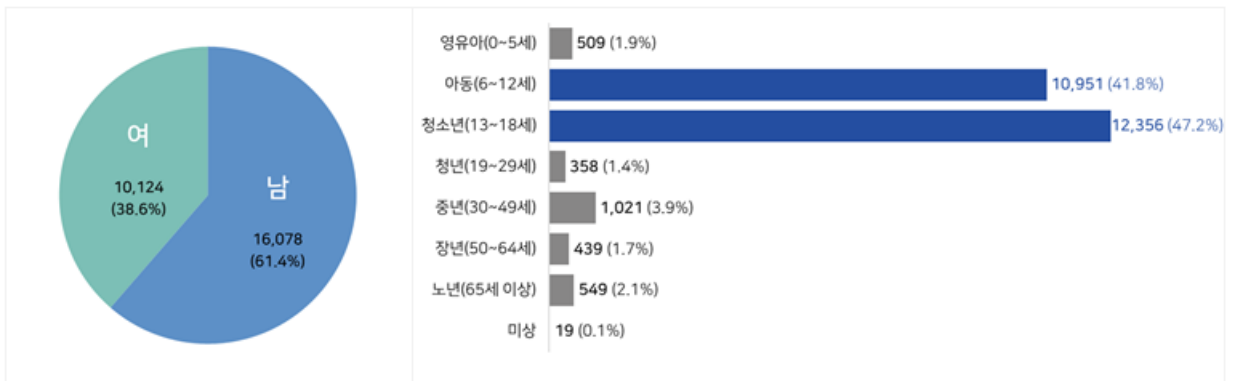
- **전국** 13~15세 비율: ³⁹주 22.1% → ⁴⁰주 20.8% → ⁴¹주 21.4% → ⁴²주 25.9%
- **인천** 13~15세 비율: ³⁹주 25.6% → ⁴⁰주 20.5% → ⁴¹주 17.1% → ⁴²주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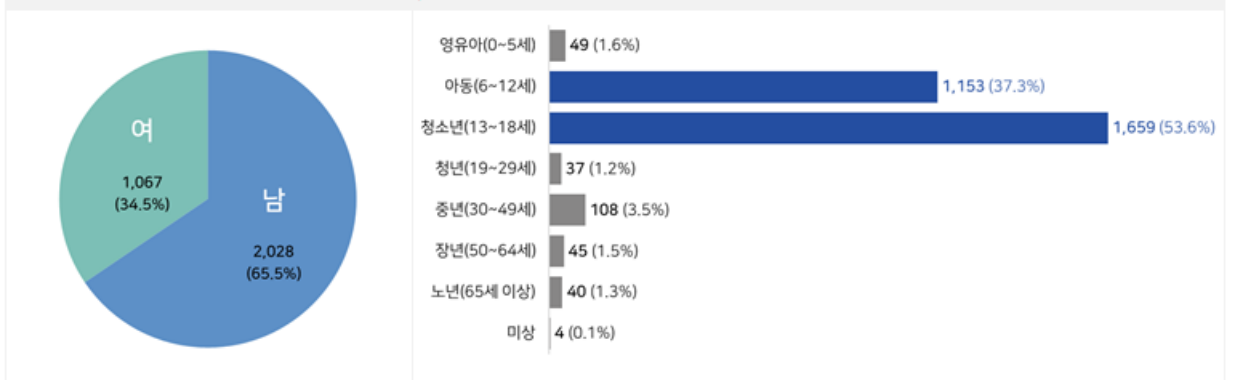
전국 주별 연령 비율 (2024.4.28~2024.10.19.)



인천 주별 연령 비율 (2024.4.28~2024.10.19.)



전국 성별, 연령대별 발생 현황(2024.1.1~2024.10.19.)



인천 성별, 연령대별 발생 현황(2024.1.1~2024.10.19.)

4. 지역별 현황

○ 2024년(1.1~10.19.) 10개 군·구 모두 발생 중

- **신고수** 서구(945명, 30.5%), 미추홀구(479명, 15.5%), 부평구(450명, 14.5%), 연수구(359명, 11.6%), 중구(289명, 9.3%)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발생률** 중구(185.32명), 서구(155.76명), 미추홀구(117.98명), 동구(94.53명), 연수구(92.26명)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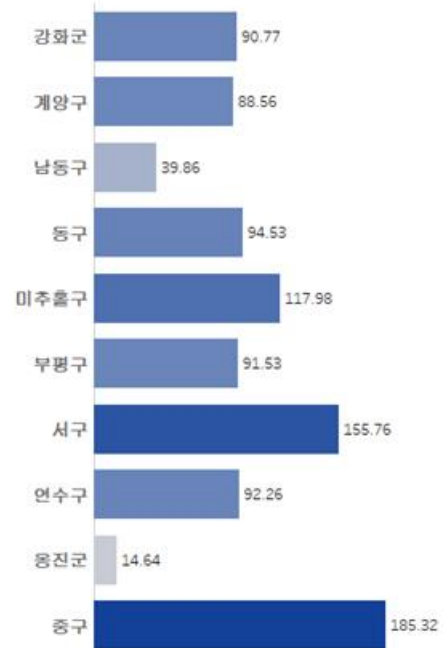
군·구별 신고수

0 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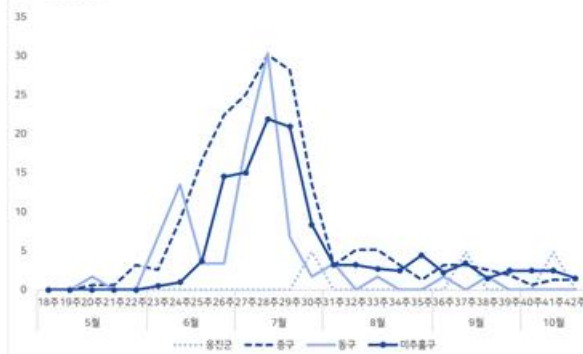
군·구별 발생률

0.00 18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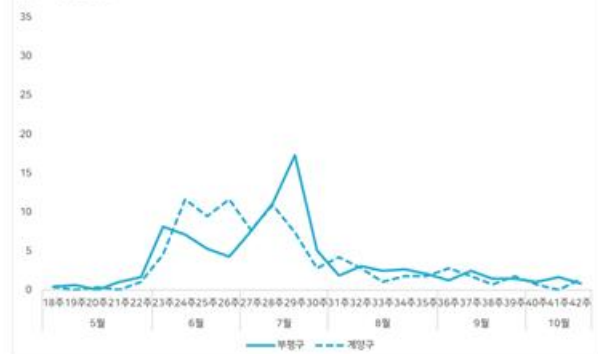
인천 군·구별 발생 현황(2024.1.1.~2024.10.19.)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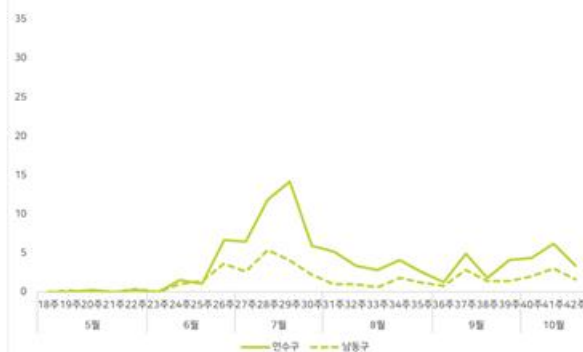
(남부) 주별 발생 현황 (2024.4.28.~2024.10.19.)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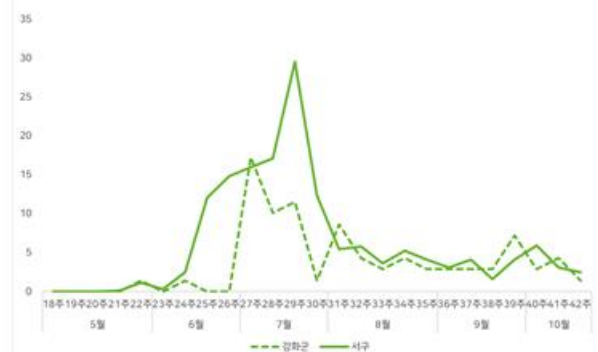
(북부) 주별 발생 현황 (2024.4.28.~2024.10.19.)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동부) 주별 발생 현황 (2024.4.28.~2024.10.19.)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서부, 강화) 인천주별 연령 비율 (2024.4.28.~2024.10.19.)

ICDC Weekly

인천광역시 감염병 주간소식지

